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December 20 2024 Vol. 942

성탄절 칸타타, 영광의 선율로 물들인 감동의 밤



지난 12월 13일(금) 오후 7시 30분 ANC 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에서는 "영광의 새 아침"이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이 펼쳐졌다. 관련기사 2면. ⓒ기독일보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주영훈 집사, 나성영락교회 주일예배서 간증 나눠

지난 15일(주일) 오전 11시, 나성영락교회 주일예배에서 주영훈 집사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주제로 간증했다.



〈새롭게하소서〉의 주영훈 집사가 나성영락교회에서 간증했다. ⓒ기독일보

주 집사는 먼저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겪은 어려움과 장로들에게 받은 상처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우리 삶에 끊임없이 걱정이 있지만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며 믿음을 통한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테말라의 전래동화를 소개하며, 사람들이 걱정을 털어놓기 위해 만들어진 '걱정 인형' 이야기를 나눴다. 걱정 인형에 마음의 염려를 고백하며 평안을 찾았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 2면에서 계속

美 교육부 강제 조치의 70%, 기독교 학교에 집중

보수종교단체 '연방정부의 무기화' 지적

미국 교육부가 '좌편향 의제'(woke agenda)를 추진하기 위해 기독교 학교를 부당하게 표적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보수 종교단체 '아메리칸 프린서플 프로젝트'(APP)는 기독교 학교에 대한 교육부 집행국의 조치를 인용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미국 내 기독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비율은 10% 미만이지만, 집행국이 실시한 강제 조치의 약 70%가 기독교 학교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캠퍼스 범죄와 관련된 연방법인 '클레리법'(Clery Act)을 위반한 혐의로 공립 및 사립학교에 부과된 벌금은 평균 약 22만 8,571달러(약 3억 2,800만 원)였으나, 기독교 학교에 부과된 벌금은 평균 81만 5,000달러(약 11억 7,000만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교로 유명한 그랜드캐니언대학교와 리버티대학교에 부과된 벌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두 학교는 모두 지난 7년 동안 부과된 모든 벌금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록적인 벌금에 직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그랜드캐니언대학교에 수년간 박사 과정 비용과 관련해 학생들을 오도한 혐의로 3,770만 달러(약 540억 9,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학교 측은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리버티대학교는 지난 3월 연방 캠퍼스 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1,400만 달러(약 200억 9,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벌금은 34년 만에 가장 큰 금액으로 기록됐다.

강혜진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 예배 오전 9시
주일2부 예배 오전 11시
GT Youth 예배 오전 11시
금요회복집회(금) 오후 8시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시
Website: http://www.thegreattree.org/
3114 Old Denton Rd, Carrollton, TX 75007
T. 972-904-3509
큰나무 교회
THE GREAT TREE CHURCH

ANC 온누리에서 울려퍼진 성탄절 칸타타

지난 12월 13일(금) 오후 7:30 ANC 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에서는 "영광의 새 아침"이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이 펼쳐졌다.

온사랑성가대, ANC Chamber Orchestra, 소율 가야금 합주단, ANC 남성 중창단 등 다양한 팀이 준비한 풍성한 찬양과 연주가 어우러져 성탄의 기쁨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했다.

행사는 김태형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소율 가야금 합주단의 연주로 첫 무대를 열었다. 전통 악기가 빚어낸 은은한 선율은 현대적인 크리스마스 캐럴과 조화를 이루며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고요한 밤 거룩한 밤'과 '천사들의 노래가'는 청중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이어서 ANC 남성 중창단(단장 김영기 장로, 반주 이지은 집사)이 '저 아기 잠이 들었네'라는 곡을 통해, 깊고 풍성한 하모니로 예수 탄생의 신비와 평화를 표현했으며, 'African Noel'(Victor C Johnson 편곡)은 흥겨운 리듬과 독창적인 편곡으로 즐거움을 안겼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칸타타 공연은 온사랑성가대(지휘 전승철 성가사, 피아노 김언정 집사,오르간 남성희 권사)와 ANC Chamber Orchestra가 협력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로이드 라슨(Lloyd Larson)의 "A New & Glorious Morn!"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 탄생부터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곡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베들레헴의 거룩한 아기'와 '목자들아 일어나 전하라!'는 깊은 울림을 주었고, 마지막 곡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희망과 영광의 메시지로 청중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정병화 목사와 엄미나 성도가 나레이션으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했고, 김태형 목사의 축도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ANC온누리교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사회의 성도들과 교회 밖 이웃들에게까지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ANC 온누리교회는 앞으로도 음악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교회는 20일(금) 저녁 7:30에 본당에서 교육부 자녀들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뮤지컬을 무대에 올린다. 조셉 리 기자



ANC 온누리교회는 13일(금) "영광의 새 아침"을 주제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개최했다. ⓒ기독일보


ANC 온누리교회는 13일(금) "영광의 새 아침"을 주제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개최했다. ⓒ기독일보

➔1면 기사 〈"걱정을 내려놓으세요..."〉에 이어서

주 집사는 인간의 공통된 걱정을 언급하며, 자녀와 건강, 재정 등 우리의 염려가 사실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의 걱정은 뻔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위장 질환의 주요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 아니라 불안과 걱정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걱정을 내려놓으면 병도 사라지고, 인생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심리적 평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집사는 자신의 20대 시절 이야기를 통해, 세상 음악이 '마귀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환경에서 자라며 겪었던 염려와 갈등을 나눴다.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의 경제적 어려움과 좌절, 그리고 작곡가 활동하며 겪었던 극심한 우울증까지, 그는 자신의 삶에서 염려가 주된 요소였음을 고백했다.

그는 특히 군 복무 면제로 인해 받았던 일부의 비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장 이상으로 면제를 받았지만, 일부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비난을 했다. 그때 우울증이 극심해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웃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11시, 나성영락교회 주일예배에서 주영훈 집사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나누었다. ⓒ기독일보

그러나 그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컴패션 활동을 통해 절대 빈곤 속에서도 기뻐하는 아이들을 만난 것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고백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 저를 보며 기뻐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주 집사는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인용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약속을 전했다. 그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이제 저는 어느정도 걱정을 내려놓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간증을 마무리하며 그는 청중들에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교회의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살아간다"며,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기를 기도한다"고 당부했다.

창대교회, 홈리스 위한 점퍼 나눔

리버사이드와 샌 버나디노 지역에서 홈리스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창대장로교회 사랑나눔 선교회가 점퍼 나눔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사랑나눔 선교회의 점퍼 나눔 행사는 12월 21일(토) 오전 8시 15분에 Meadow Park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951-966-9191(창대장로교회 이춘준 목사)



➔1면 기사 〈美 교육부...〉에 이어서

반면 교육부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미시간주립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 부과한 벌금은 각각 240만 달러(약 34억 4,000만 원), 450만 달러(약 64억 6,000만 원)로, 앞서 언급된 학교들보다 훨씬 적었다.

보고서는 "최소 12개의 기독교 대학이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연방 학생 지원금을 받는 것이 금지됐으며, 이에 비해 아이비리그 대학은 집행 사무소로부터 처벌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의 저자인 존 슈웨프(Jon Schweppe) APP 정책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모든 부분을 무기로 삼아 반대 세력을 겨냥하고 있는 사례"라며 "민주당은 지난 4년 동안 반대자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 연방정부의 모든 부서를 무기화하는 데 바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교육부는 좌파 의제에 반대하는 기독교 대학들을 처벌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참여해 왔다"고 했다.



폭소와 감동 넘친 힐링 콘서트 '비러브드(Beloved)'

〈새롭게하소서〉 주영훈, 송지은, 박요한, 조범진 등 출연

지난 12월 13일(금)과 14일(토) 오후 8시와 7시 라 미라다 극장(La Mirada Theatre)에서 CBS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하소서〉 진행팀과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 이 함께 준비한 힐링 토크 뮤직 콘서트 'Beloved(사랑하는 자여)'가 무대에 올랐다.

〈새롭게하소서〉의 진행자로 맹활약 중인 주영훈 집사가 진행자로 나서 각 출연진들을 소개하며 토크쇼를 이어나갔다. 이날, 〈사랑과 평화〉 전 기타리스트 조범진 교수, 박요한 목사(프렌즈 교회), 송지은(전 시크릿 멤버), 가수 다비(DAVII)를 비롯해 가스펠 그룹과 할리우드 밴드가 무대에 함께해 음악과 메시지를 통해 위로를 전했다.

주영훈 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쇼에서 조셉 리 목사는 어려움을 겪던 십대 시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중, "사랑하는 자여"라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며, 이 콘서트를 열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주영훈 집사는 특유의 위트와 입담으로 좌중을 사로잡으며, 폭소와 감동을 이끌어냈다.

박요한 목사는 "상처를 치유하려고 중독으로 연결되는 거 같다. 세상에서 내 상처를 치유하려 하면 그 당시는 괜찮아 지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마취주사 같다. 잠시 잠깐 고통을 잊는 것 같지만 중독은 더 깊어진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중독의 근원이 치유된다"고 말했다.

이날, 마이클 잭슨, 저스틴 팀버레이크, 휘트니 휴스턴 등의 공연에 함께했던 최고의 밴드가 함께해 더욱 콘서트의 자리를 빛냈다. 특히, 건반을 연주한 에디 브라운은 스티비 원더의 공연을 뒤로하고 이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콘서트에 앞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러빙워십은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고 사람들 마음이 각박해졌다. 그런 모든 면에서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다"며, "믿음의 가정의 회복"이 이 콘서트를 기획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콘서트 를 주최한 러빙워십은 앞으로도 일년에 한 두번 씩 문화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남가주 교회들과 협력해 릴레이 콘서트처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이번 'Beloved' 힐링 토크 콘서트는 감사한인교회, 나성영락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베델교회, 새생명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 충현선교교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 토랜스 조은교회, LA동부사랑의교회, LA온누리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에브리데이교회, 기독일보, KBS, SBS, YTV 연합뉴스, 순무브먼트 글로벌이 협력했다.

러빙워십은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Cerritos Crossroads Multinational Church of the Nazarene(주소: 12229 Del Amo Blvd. Cerritos, CA 90703)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주디 한 기자



주영훈 집사, 송지은, 박요한 목사, 조범진 교수, 조셉 리 목사가 토크쇼에 함께했다. ©기독일보



12월 13일(금)과 14일(토) 라 미라다 극장에서 〈새롭게하소서〉 진행팀과 러빙워십이 함께 준비한 힐링 토크 뮤직 콘서트 'Beloved'(사랑하는 자여)'가 무대에 올랐다. ©기독일보

샌퍼난도밸리 교역자협의회 성탄축하 연합예배

세계예수교장로회(GAWPC) 남가주노회(노회장 정요한 목사)가 지난 12월 11일(수) 멕시코 티화나소재 엘림교회(김영락 선교사 시무)에서 임원회를 개최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정요한 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박만서 장로 대표기도, 여성중창단의 특별찬양에 이어 증경노회장 박종대 목사가 '사도 바울의 열정과 선교사역'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직전노회장 오요하 목사가 축도했다.

김영락 선교사는 "남가주노회의 관심과 사랑이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고아원 사역에 많은 도전과 용기를 갖게 해 준다" 고 인사말을 했다. 김 선교사는 현재 티화나지역 인근에 3개의 고아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사역하고 있는 고아원은 씨엠쁘레 에스 파밀리아 (항상 가족), 씨엠쁘레 로스 니뇨스 (항상 어린이들), 꼴리나 데 루스 (빛의 언덕)이다.

이날 남가주노회 소속 LA세계비젼교회 박기덕 목사, 남가주중앙교회 박종대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헌금한 전액을 고아원 선교헌금으로 전달했다. 김민선 기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2024년 송년 모임

12월 16일 아로마센터서
한기홍 목사, "청교도 신앙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는 지난 12월 16일 오후 5시 아로마센터 연회실에서 2024년 송년 감사예배와 송년축하행사를 가졌다.

성시화 공동대표, 공동회장, 이사회와 운영위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1부 예배, 2부 식사 그리고 3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성시화 사무국장 이철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는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기홍 목사는 설교에서 고국의 상황을 보면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미국이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위기를 맞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자고 권했다. 미국의 희망은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 시키는 것이 성시화 활동이라고 전했다.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는 지난 12월 16일 오후 5시 아로마센터 연회실에서 2024년 송년감사예배와 송년축하행사를 가졌다.ⓒ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1부 예배는 성시화 운영위원인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점심식사 후 운영위원인 곽윤영 집사의 사회로 3부 친교의 시간이 이어졌다. 3부는 김재권 이사장의 환영인사, 송정명 목사의 내빈 소개에 이어서 성시화 운영위원인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표)의 사회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했다. 상품권 추첨과 게임, 노래와 율동이 어우러진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과일, 책, 라면, 쌍화탕 등 푸짐한 선물을 전달했다.

마지막 합심기도를 인도한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는 "은혜, 음악, 음식, 사랑, 선물, 웃음이 풍성한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윤준 기자



남가주교협 진건호 목사, “첫째도 둘째도 통합”

전기총과 MOU 체결

남가주교협 제 55대 회장단 취임감사예배가 15일 오후 5시에 멜리데교회(고귀남 목사)에서 드려진 가운데, 진건호 목사가 남가주교협 통합에 모든 힘을 기울 것이라고 밝혔다.

진 목사는 취임사에서 “첫째도 통합, 둘째로 통합, 셋째도 통합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동안 교계 원로인 송정명 목사, 강순영 목사 등 중진들께서 남가주교협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해 축사를 한 교계 인사들도 남가주교협의 통합을 주문하고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돕고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가주교협 제 55대 회장단 취임감사예배가 15일 오후 5시에 멜리데교회에서 드려진 가운데, 진건호 목사가 남가주교협 통합에 모든 힘을 기울 것이라고 밝혔다.

남가주교협은 전국기독교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하고 명예회장에 진동은(대한민국 건국회 총재) 목사, 수석부회장에 서사라 목사, 상임이사장에 모종태 장로, 운영이사장에 엘리야 김 목사가 각각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진동은 목사 대독으로 장종현 박사(한교총 전 대표회장), 이기욱 대표(조선일보), 김영균 목사(우정의종 보전재단 이사장), 서경원 장로(남가주장로협 회장)가 축사했다.

1부 예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제목으로 설교를 한 진동은 목사는 “주변의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살펴봐야 한다. 다윗은 주변의 사람을 잘 살피라고 하는데, 악인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라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내가 얻는 것 같지만 결론은 손해보는 길로 가게 된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 은혜는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미드웨스턴 76회 졸업식 최대 규모 학위 수여식 거행

2024년에만 53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중국부 첫 졸업생 배출

캔사스 시티에 있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이 2024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해마다 봄과 겨울, 두 번의 졸업식을 통해 For the Church 의 비전을 구비한 학문과 사역 전문가들을 배출해 온 미드웨스턴은, 지난 12월 5일에 열린 제 76회 졸업식에서 졸업생 300여 명을 배출하며 개교 이래 최대 규모의 학위 수여식을 거행했다.

지난 5월의 졸업생을 포함하면, 2024년에만 53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한국부는 박사과정 12명, 석사과정 14명 등 졸업생 26명을 배출과 함께 수준 높은 PhD 논문이 많이 나왔다.

신종우 박사, “초기 교회 예배 의식 전승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의 역할”

그 중에서 신종우 박사는 SBL(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로부터 폴 악트마이어 상을 수상한 김규섭 교수의 지도 하에 “초기 교회 예배 의식 전승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리아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예배 의식을 어떤 전승 과정을 거쳐 전달받았는지를 역사적, 전통적 맥락을 심도 있게 고찰했다. 최근 신약과 관련된 의식 기원 연구는 구전과 문서 전달 과정에 나타난 전통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불연속성을 중심으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에서 특정 장소를 초기 의식 형성의 중요 장소로 지목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장소로 언급되는 교회가 바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디옥 교회는 불연속적 특징과 함께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보여주는 의식의 발전된 형태를 보여준다는 주장을 성만찬의 전통이 마태복음, 바울서신, 디다케와 이그나티우스의 고대 문헌을 비교 문헌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매우 학문적인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김원희 박사, 초기 교회 예배 의식 전승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의 역할

또한 예술가로서 성경사역학 PhD 학위를 취득하게 된 김원희 박사는 심민수, 서나영 교수의 지도 하에 “기독교 신앙과 예술에 대한 고찰: 프란시스 쉐퍼와 한스 로크마커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신앙과 예술의 창조적 조우를 탐구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졸업식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중국부의 첫 졸업생 배출이다. 2016년 개설 이후 8년 만에 맺은 첫 결실로, 석사과정 10명과 박사과정 5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중국부는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세계에 흩어져있는 중국인 신학도들의 교육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로서 미드웨스턴의 아시아부는, 한국부와 중국부를 합쳐 900여 명의 재학생이 수학하는 양적 성장은 물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갖춘 학문과 사역의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질적 성장을 함께 이루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아시아부 학장인 박성진 교수는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은 5일에 열린 76회 졸업식에서 졸업생 300여 명을 배출하며 개교 이래 최대 규모의 학위 수여식을 거행했다.

“미드웨스턴 아시아부의 성장은 양질의 교육을 근간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함께 장학금 및 저렴한 등록금,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침례회(SBC) 산하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은 ‘For the Church’(교회를 위하여)라는 기치 아래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ATS와 HLC의 정식 인가를 받은 미드웨스턴은 현재 한국부만 720여 명의 재학생이 수학하고 있으며, 탁월한 교수진과 현장 중심의 실제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입학 등 학위과정 문의는 한국부 사무실의 김동규 팀장(Tel.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ks)에게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당신도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다
■ 화요일 오후 5:30
■ 금요일 오후 5:30
■ 주일 오후 2:30
회복기도의 집
박태욱 목사 T.(213)500-0480
3054 W 8th ST. STE 204, LA, CA 90006
1. 치유와 축사
2. 대적기도
3. 거룩한 신앙생활
4. 일반적인 영적전쟁
5. 차원높은 영적전쟁
6. 마지막 시간을 위한 훈련

동부한인교회협의회

회원명단
1. 선한목자교회 : 고태형 목사
2. 동부사랑의교회 : 우영화 목사
3. 주님Church : 최현규 목사
4. 유니온교회 : 구자민 목사
5. 아름다운교회 : 고승희 목사
6. 나성한미교회 : 홍충수 목사
7. 글로발선교교회 : 김지성 목사
8. 할렐루야교회 : 송재호 목사
9. 좋은비전교회 : 최준우 목사
10. 브릿지교회 : 박진석 목사
11. 씨드교회 : 권혁빈 목사
12. 주님의교회 : 김병학 목사
13. 호산나교회 : 라세염 목사
14. 늘푸른교회 : 박선호 목사
15. 선한청지기교회 : 송병주 목사

회장 : 최현규 목사
부회장 : 홍충수 목사
총무 및 회계 : 구자민 목사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센터메디컬그룹

올 한 해도 당신 곁에 센터메디컬그룹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당신곁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변함없이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한 연말 보내세요.
MERRY CHRISTMAS!

– 센터메디컬그룹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 -3098

KWMA 선정 2024년 한국선교 주요 이슈 10가지 발표

'2024년 KWMA 10대 선교 뉴스 발표회' 진행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11일 서울 노량진 KWMA 세미나실에서 2024년 KWMA 10대 선교 뉴스를 발표했다.

KWMA는 올해 주요 선교 이슈로 '뉴 타깃 2030'(New Target 2030)의 선포와 글로벌 사우스 선교 운동의 본격화, 선교지 이단 문제 대응 구체화, 로잔대회를 통한 전문인 사역의 일반화 등을 꼽았다.

KWMA 사무총장 강대흥 목사는 이날 KWMA가 바라보는 10대 한국선교 뉴스로 '①New Target 2030 ②글로벌 사우스 선교 운동 ③제22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 ④선교지 이단 문제 대응 및 선교지 이단 대책 실행위원회 준비 ⑤KWMA 지역 모임 활성화 ⑥교단 선교회 리더십 초청 간담회 ⑦KWMA 포럼(자신학화, 선교학 교수모임) ⑧법인이사회(차기 리더십 선출) ⑨선교사 복지 정책 개발 ⑩선교 통계 발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각 이슈의 주요 내용이다.

①New Target 2030=지난 11월 열린 '해운대 포럼'에서는 급변하는 세계선교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New Target 2030이 선포됐다. 이 선교 운동은 한국교회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4가지 선교영역으로, 국제적으로는 '비서구 중심의 선교 운동', 국내적으로는 '이주민 선교', 선교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해 '다음세대 선교'와 '디지털 선교'를 제시했다. KWMA 법인이사장 이규현 목사는 "이 운동이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은 "'New Target 2030'을 통해 한국교회의 선교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②글로벌 사우스 선교 운동=글로벌 사우스, 비서구 선교운동의 선교 발전에 대한 논의와 협력이 활성화됐다. 아시아와 아랍, 아프리카, 라틴 등 비서구권 선교운동이 최초로 실제적으로 연합한 코알라(COALA, Christ over Asia, Arab, Africa & Latin)는 지난 5월 방콕에서 20개국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알라2 선교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성명은 세계기독교 시대에 현지인 중심의 선교, 현지교회와 교단을 존중하는 선교, 글로벌 선교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비서구 선교지도자들의 동의를 담았다. 3차 대회는 남미선교네트워크(COMIBAM) 주최로 2025년 4월 파나마에서 개최되며,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과 글로벌 사우스 선교지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코알라2.5 대회는 지난 9월 부산에서 35개국 100명의 비서구 선교지도자가 참여한 가운데 '포스트 로잔 부산 게더링'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유럽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매년 폴란드에서 모이는 ELF(European Leadership Forum)에 한국교회 선교 지도자들이 참여해 대화와 협력을 논의했다. 이후 옥스퍼드 다이얼로그(Oxford Dialogue)는 2025년 5월 런던에서, ELF-Korea 대화는 폴란드 비슬라에서 진행된다. C국, I국, 중동 지역 등 제3세계 고난받는 지역 선교 운동과의 선교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③제22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한선지포)=국내 이주민 250만 시대를 맞아 '이주민 선교'를 주제로 지난 10월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개최됐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인식 변화와 협력을 모색하고, '이주민 선교 로드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Action Plan) 개발과 적용에 집중했다. 또 국내 이단의 해외 포교 및 국내 이주민 포교 실태를 소개하여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했다.

④선교지 이단 문제 대응 및 선교지 이단 대책 실행위원회 준비=KWMA는 이단 연구 전문가들과의 모임을 가지고, 선교지의 이단 활동에 대한 현황과 최근 국내 이주민 대상으로 활동 중인 이단들의 영향에 대해 나누는 한편 선교적 대응과 대처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대흥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선교지 이단 대응 실행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단 연구 전문가들은 선교지의 한국 이단 관련 문서 확인 작업과 이단 방지 교육, 이단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한 상담 과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향후 구체적인 조직을 갖추고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⑤KWMA 지역 모임 활성화=중앙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과 정신을 전국 교회와 공유하기 위해 지역 KWMA 설립이 진행됐다. 현재까지 설립된 곳은 △2021년 12월 여수 KWMA(회장 이호윤 목사/여수중앙교회, 사무총장 하금석 선교사) △2022년 1월 울산경남 KWMA(이사장 박정곤 목사/고현교회, 사무총장 손승호 선교사) △2024년 2월 부산 KWMA(이사장 이요한 목사/온천교회, 사무총장 변인석 선교사) △2024년 9월 대구경북 KWMA(이사장 박진석 목사/기쁨의교회, 사무총장 하광락 선교사)로, 지역 교회, 선교단체, 선교인들과의 연합을 통해 지역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KWMA가 11일 10대 선교 뉴스를 발표했다. ⓒ기독일보

⑥교단 선교회 리더십 초청 간담회=지난 10월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14개 교단(통합, 합동, 기감, 기성, 기하성, 기침, 대신, 합신, 백석, 예성, 기장, 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 미국남침례교단 한국선교회, 예장 개혁)의 교단선교회 리더 35명을 초청해 간담회가 개최됐다. 급변하는 세계선교 환경과 국내선교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단 선교회 리더들이 세계선교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교단 간 리더십 교류의 장이 되었다. 간담회를 통해 공유한 주요한 선교 주제들은 교단별로 실천 가능한 내용들을 연구하여 적용하기로 했고, 2025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교단 총회장 선교 간담회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⑦KWMA 포럼(자신학화, 선교학 교수모임)=지난 4월 광림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열린 자신학화 심포지움에서는 한국형 선교 신학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기독교 시대에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 선교의 한 축으로, 또 글로벌 노스 교회와 협력을 요청받으면서 한국적 선교 모델과 신학을 글로벌 교회와 나누어야 할 책무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적 자신학 및 한국적 선교전략 모델을 계속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1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선교학 교수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난 1년 동안 KWMA가 진행한 사역을 선교학 교수들과 공유하고, 선교학 교수들은 선교 현장과 한국선교의 주요 선교 이슈들과 세계 선교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⑧법인이사회(차기 리더십 선출)=2025년 KWMA를 섬길 새로운 리더십은 법인이사회 회장 주승중 목사(주안교회), 법인이사회 부회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회장 황성주 박사(국제사랑의봉사단), 운영이사회 회장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운영이사회 부회장 고성준 목사(수원 하나교회)이다. 교단 선교회에서도 2024년 리더십 교체가 진행돼 GMS(합동) 허성회 선교사(중국), PCK(통합) 류현웅 목사(명성교회), KMC(기감) 황병배 교수(협성대), KPM 고신) 조동제 선교사(미얀마)가 리더십으로 세워졌다.

⑨로잔 선교 포럼을 통한 전문인 사역의 일반화=지난 9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차 로잔대회의 특징 중 하나는 평신도, 젊은이, 여성의 참석 비율이 많았고, 전문 직업인의 참석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또 로잔에서 나온 이슈 가운데 KWMA가 더욱 집중해서 바라보는 2가지 이슈는 다중심주의 선교(Poly Centric Mission)와 마켓 플레이스(Market Place) 사역이다.

⑩선교 통계 발표=지난 3월 한국선교연구원(KRIM)과 함께 2023년 한국 선교사 현황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지난 7월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와 함께 2024년 해외선교 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 선교사의 연령 분포는 50대 이상이 67.91%, 60대 이상은 29.36%였다. 반면 30세 이하는 6.92%에 불과하여, 전년 대비 60대와 70대의 비율은 늘어나고, 50대 이하 연령대는 모두 감소했다. 은퇴선교사는 178개 단체에서 1.25%로, 2023년 한 해 274명이 은퇴했다. 선교사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대상자는 늘어가고 있지만, 매년 실제 은퇴하는 숫자는 그에 훨씬 못 미쳤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10년 안에 약 5,000명의 선교사가 은퇴하고 귀국하여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 선교사가 반토막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 중 '교회 개척·목회'(25.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지희 기자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뱅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무료전화 1-877-580-2424 샌프란시스코베이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S사랑하는
M마음으로
G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 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 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지도록 기도하자”

교계 지도자들,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기도 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기도할 것을 한국교회에 요청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현 시국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좋다”며 “신앙의 자유의 전제는 자유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는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한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에 민족과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또 장로교회의 가치관으로 볼 때 삼권분립에 의한 민주주의가 잘 진행돼야 한다. 행정 입법 사법부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 칼빈주의에 따르면, 적절한 균형이 민주주의에서 핵심 가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존중하고 소통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럴 때 자유민주주의를 세워갈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소위 오징어게임의 나라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즉 상생이 아닌 ‘나는 살고, 너는 죽자’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바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고 했다. 권 목사는 “지금 이 시국에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빛은 선지자적 역할로 성경의 바른 가치관과 방향, 비전을 제시하는 것, 소금은 제사장 역할로 갈등과 편가르기로 상처받은 대한민국에 치유와 회복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구 전 총신대 총장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50년 동안 복음에서 멀어진 결과”라며 “교회 강단은 세상에서 잘먹고 잘사는 설교만 했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설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목회 강단에서부터 확실히 아모스와 하박국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고 했다. 숭실대 명예교수 김영한 박사는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물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생태계 복원이나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을 식물화시킨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지나쳤다고 본다. 그러나 헌법상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계엄을 6시간 내로 해제했기에 내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정 안정화를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 혐의로 몰아가선 안 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교회는 사회 정의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한다. 사회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선의의 피난처가 돼야 한다. 목회자들이 먼저 공의와 정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교회 강단이 정부 관료나 재판관 등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영역주권의 원리에 따라 헌법과 양심에 기초해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 결국 신앙의 자유를 보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및 반대 집회가 지난 14일 각각 여의도(왼쪽)와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원성웅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전 감독)는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정치적으로 인내하면서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등을 미뤄보건대 그의 계엄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 등 의회 독재와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려고 한 것이었기에, 내란이 아닌 헌법상 비상권 행사로 본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뤄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美 뉴욕시장, 실종된 이주 아동 50만 명에 대한 우려 표명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이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시장이 이주 아동 수십만 명이 인신매매되는 문제에 관해 언급했다.

에릭 애덤스(Eric Adams) 뉴욕시장은 12일(이하 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실종된 어린이가 50만 명이나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찾을 수 없다”며 “우리는 그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지, 성범죄에 노출돼 있는지, 착취당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문을 열었다. 애덤스 시장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감찰관실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ICE)은 DHS와 보건복지부(HHS) 구금에서 풀려난 모든 무보호 이주 아동을 감시할 수 없다”고 했다. 8월에 발표된 DHS 보고서는 “ICE는 모든 비보호 이주 아동의 위치와 상태를 감시하거나 그들에 대해 필요에 따른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없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폭스뉴스 영상 캡쳐

이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448,000명의 비보호 불법 이민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HHS 난민 재정착 서비스 사무소(ORR)로 이관했다. 이민 법원 절차를 기다리는 불법 이민자 아동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ORR은 아동을 보호소나 자격을 갖춘 보호자에게 맡긴다. 미성년자가 HHS에 인계된 후에도 ICE는 이민 법원 절차를 관리할 책임을 유지한다.

보호자가 없는 불법 이민자 아동 32,000명은 이민 법원 심리에 출두하지 않았으나, 보고서는 보호자가 없고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291,000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감사 작업과 ICE 관계자에 따르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이주 아동은 인신매매, 착취, 또는 강제 노동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간주된다. ICE는 모든 이주 아동에 출두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HHS의 구금에서 풀려날 때 이주 아동과 접촉할 가능성을 제한해 안전을 확인할 기회를 줄인다”고 했다.

이어 “ICE는 이주 아동의 위치와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 아동들은 인신매매, 착취, 또는 강제 노동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실종된 불법 이민자 아동의 수가 많은 것은 ICE와 HHS 간의 소통이 실패했고, 보호자가 없는 불법 이민자 아동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발견되더라도 ICE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지난달 미국 하원 사법부 이민 무결성, 보안 및 집행 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는 연방정부의 후원자 심사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 아동의 강제 이주, 매매 및 학대를 조장했다는 플로리다 대배심 보고서도 언급됐다.

플로리다 대배심은 “후원자들이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제안하면서 주소지로 스트립 클럽을 사용했고,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친척이 아동을 매춘시켰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대배심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자가 없는 불법 이민자 아이들의 후원자를 심사하지 못했다는 고발자 보고서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2024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CP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온캠퍼스과 온라인 동시 프로그램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 SINCE 1975 •
귀생당

소중한 분들을 위한 따뜻한 선물

[연말연시 건강지킴이 귀생당]

정성과 **마음**을 가득 담은
귀한 분들을 위한 **건강지킴이** - **귀생당**

한 해 동안 귀생당을 사랑해 주신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연말연시 귀생당 건강지킴이로 소중한 분들께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전해 보세요!

Special Price



귀생당
당간신구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 기능을
강화해서 당뇨와 합병증으로 부터
해방 되십시오!

Special Price



귀생당
후코이단
강력한 면역시스템 활성화로
항종양, 항궤양, 항바이러스등
질병으로 부터 자유로워집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아이 눈 아이
피로한 눈, 노안, 녹내장,
백내장 등 각종 눈질환 개선에
탁월합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후코이단 드링크
후코이단 드링크 한 병당 함량을
5400mg으로 높여 인체에 더 빠르게 흡수되고
효능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동의비
허준의 동의보감의 비방으로 6년근
홍삼과 녹용, 지황등 20여가지 신비의
약초가 한 알에 모두 함축되었습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홍삼100% 진생프레소
오로지 6년근 홍삼만을 진하게 담아
면역력증진, 피로회복, 당뇨개선,
동맥경화, 황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홍삼+경옥고 홍력소
6년근 홍삼에 경옥고가 더해져
면역력을 키워 떨어진 체력을 회복시키고
골다공증, 기억력을 회복해 줍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글루코사민
천연 콘드로이친의 상어연골과 지느러미로
만들어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각종 관절염에
탁월하고 위장에 부담없는 글루코사민입니다.

• SINCE 1975 •
귀생당

www.kiseidousa.com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13.384.3333 / 800.909.0001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

시리아 기독교인, 이슬람주의 반군 점령 아래 불확실한 미래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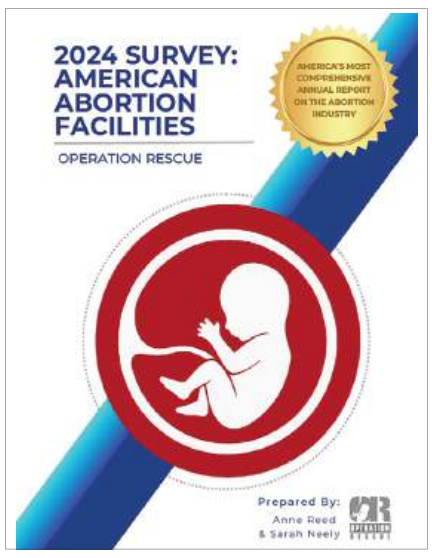
IS 침공 1년 후, 많은 시리아 기독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기독일보 DB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주의 무장 반군의 통제 아래 불확실하고 위험한 미래에 직면했다며 이에 한 인권 단체가 우려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년간의 내전으로 크게 줄어든 알레포의 기독교들은 현재 점차 커지는 위협과 제약에 대한 우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

CT는 이슬람주의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약 일주일 전 알레포를 점령한 데 이어 홈스와 다마스쿠스까지 함락시키며 시리아 정부군을 전복시켰다고 밝혔다.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토요일 밤 러시아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HTS의 알레포 점령 이후 다마스쿠스와 알레포를 연결하는 주요 고속도로가 차단되면서 주민들은 혼잡하고 위험한 대체 경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CNA는 전했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시리아의 아르메니아인 커뮤니티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레포를 탈출하려다 저격수의 총에 사망한 기독교인 의사 아르완트 아르슬라니안의 죽음을 알렸다. 한편, 젊은 기독교인들이 탄 버스가 알레포 도로에서 고립되었지만, 가까스로 시리아 정교회 대주교관으로 피신했다. CT는 많은 기독교인이 도시를 떠났지만,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남아 신앙과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르 부트로스 카시스 시리아 정교회 대주교와 다른 지도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도들에게 기도회를 제공하며, "현실을 용기와 믿음으로 맞서라"고 격려했다. 프란치스칸 소속 바흐야트 카라카치 신부는 "남을지 떠날지는 각 개인과 가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성직자들은 남아 상황의 전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HTS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민간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HTS 지도자 아부 무하마드 알졸라니는 알레포 성채를 방문하며, "알레포는 항상 문명과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이었다"고 강조했다. CT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Christian Solidarity International(CSI)은 HTS의 약속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CSI는 HTS가 기독교인을 '임시 거주자'로 간주하며 신분 부과를 피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구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르메니아 가톨릭교회의 부트로스 마라이아티 대주교는 미사 중 신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모든 측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평소처럼 생활을 이어가라"고 덧붙였다.

최승연 기자

美 낙태 시술소, 지속적 감소 중... "고용 · 유지 어려움"



▲오퍼레이션 레스큐 보고서.

우편 주문 가능한 '화학적 약물 낙태' 는 증가세

올 한 해 동안 미국의 낙태 시술소 수가 감소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친생명단체 '오퍼레이션 레스큐'(Operation Rescue)가 미국의 낙태 시술소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조사 결과, 2023년에 88곳이, 올해는 현재까지 29여 곳이 폐쇄됐다. 또 올해 20개 병원은 더 이상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문을 연 낙태 시술소 수가 46개인 것을 감안할 때, 2023년에는 670개, 2024년에는 총 667개가 운영된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낙태 시술소가 환자를 직접 만나는 개념을 포기하는 이러한 추세는 그들이 시술자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반면 우편으로 주문 가능한 '화학적 약물 낙태'는 편리함과 저렴함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한 올해 14개주에서 사실상 '전면적 낙태 금지법'을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앨라배마·아칸소·아이다호·인디애나·켄터키·루이지애나·미시시피·미주리·노스다코타·오클라호마·사우스다코타·테네시·텍사스·웨스트버지니아에서 태아의 생명을 임신부터 출생까지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플로리다·조지아·아이오와·사우스캐롤라이나는 낙태를 금지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임신 6주차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돼 있다. 오퍼레이션 레스큐의 트로이 뉴먼 회장은 성명을 통해 "낙태를 전면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2022년 6월 뒤집힌 후, 낙태 시술소들이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낙태 시술소들이 의사를 고용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를 계속 보고 있다"며 "생명을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기 전에도 미국에서 운영되는 낙태 시술소의 수는 상당히 감소돼 왔다. 1991년 2,176개에서 2021년 720개로 줄었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진건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스위스 대법원, 10대 딸 성전환 반대한 부모 권리 박탈



▲스위스 연방대법원 전경. ⓒ위키피디아

스위스 연방대법원 (Schweizerisches Bundesgericht)은 한 부모가 가출한 10대 딸의 '성전환'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에 이 부모는 유럽인권재판소에 항소를 고려 중이다.

이 17세 소녀는 1년 반 전 부모가 자신의 성전환'에 반대한 후 가출했다. 그녀는 2023년 4월부터 정부 보호소에서 살았으며, 국가는 부모가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규제했다.

대법원은 부모가 신분증을 제출해 소녀가 합법적으로 성전환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제네바 사법재판소 판결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 법률권리단체 국제 자유수호연맹(국제 ADF)이 지난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부모는 대법원의 판결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결 후, 그 소녀의 아버지는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딸을 사랑하고 그녀에게 가장 좋은 것만 원한다. 우리는 이 결정이 그녀에게 최선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어 "딸을 돌보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스위스 당국에 성전환주의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 보여 준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국제 ADF의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스위스 연방헌법과 국제법이 모두 딸의 합법적인 성전환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부모가 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전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국제 ADF은 "이 사건은 그 소녀가 13살이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때부터 시작됐다. 부모는 딸이 처음에 자신이 남자라고 주장했을 때, 충동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강요당하는 것을 걱정했다"고 전했다.

국제 ADF은 "성별 긍정 치료의 여러 측면을 비판한 영국의 '카스 리뷰'(Cass Review)의 결과가 이 모델의 위험과 해악에 대한 부모의 우려를 확인했다. 칠레의 성전환 치료에 대한 최근 비판도 부모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부모는 이후 딸에게 '사춘기 억제제' 복용시키는 것을 거부했고, 학교에는 딸의 '사회적 성전환'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는 딸에 대한 부모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녀를 사회적으로 성전환시켰고, 주 아동복지기관인 'Service de Protection des Mineurs'(SPMI) 및 트랜스젠더 활동가 단체와 연락을 취했다.

그 후 그 소녀는 부모와 헤어졌고 그녀의 의료에 대한 법적 권한도 부모에게서 SPMI로 이양됐다. 부모는 법적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그들에게 합법적인 성전환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심리 후, 국제 ADF의 유럽 옹호 이사인 펠릭스 뵐만(Felix Böllmann)은 "딸에 대한 부모의 동기는 그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뵐만은 "이 부모는 모든 시점에서 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국제법에 따른 권리이자 의무"라며 "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것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침해다. 그리고 사실상 딸에게 부모의 뜻에 반하는 법적 '전환'을 명령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심리적 유익에 대한 증거가 없는 개입일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개입의 길을 열 수도 있다"고 했다. 연방 법원을 상대로 한 부모의 항소는 스위스 연방헌법 제11조, 아동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 제3조, 유럽인권협약(ECHR) 제8조를 근거로 이뤄졌다. 그들의 법적 주장은 딸의 합법적인 '성전환'을 강제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 ADF는 "연방대법원은 성별 '자기결정'을 허용하는 연방법률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 헌법 및 초국가적 또는 국제적 법률과 같은 상위법에 따라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 연방헌법 제11조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해 "아동 및 청소년은 자신의 완전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발달 촉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는 "공공 또는 사적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아동 관련 조치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혜진 기자

美 위스콘신 기독교학교 총격 사건 발생… 3명 사망, 6명 부상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6일(이하 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매디슨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7분 어번던트라이프기독교학교(Abundant Life Christian School, ALCS)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정정했다.

용의자(17)는 이 학교 학생으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학교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현지 사법당국은 용의자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 소식통은 CNN에 그가 여성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격 사건으로 최소 6명이 다쳐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그 중 2명은 위독한 상태다. 희생자 중에는 교사와 십대 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슨시 숀 반스 경찰국장은 "오늘은 매디슨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있어서도 슬픈 날이다. 그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어린이와 사람들이 피해자"라며 "이런 종류의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1978년 설립된 ALCS는 유치원부터 12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420명이 재학 중이며, 기독교 중심으로 수업하고 있다.

ALCS는 오후 12시 30분 경 페이스북을 통해 "기도를 부탁드린다. 오늘 ALCS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정보를 공유하겠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글을 남겼다.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00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축성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만남의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어린이부 오전 10:30 (교육관 1층)
중고등부 오전 10:30 (교육관 2층)
만남한국학교 오후 12:30~2: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능히 할 수 있는 믿음 공동체 (막 9:23)

주향교회 JOOHYANG PRESBYTERIAN CHURCH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0:5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김 신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F. (213)383-5085
info@joohyang.org

이 땅의 참 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비젼입니다.

코너스톤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www.cornerstonetv.com

공적신학 실천센터

Center for Public Theology and Practice

"공적신학 실천 센터 비젼"
복음을 확신하며 복음의 실천을 통해 공적교회의 공적책임에 다가선다!


류준영 목사

www.pubtheo.org
T.(310)738–0485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다우니제일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아동부 주일예배 오전 11:00
Youth, EM 주일 오전11:00


지영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el)562-861-1004 downeyfirstchurch@gmail.com

동부사랑의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40
주일예배 3부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한어대학청년부(드림청년부)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금 저녁 7: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20


우영화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ESCC), eastsarangweb@gmail.com
www.eastsarang.org

축성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더 섬기는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오전 11:00
주일 2부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금7 :00


김영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1620 E Chapman Ave, Fullerton, CA 92831
T.(909) 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산타모니카 한인 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산타모니카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Dallas Baptist University
Talbot Seminary
Azusa Pacific University
BA, MA, MDiv,
DMin(candidate)

주소 및 전화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kyung.kim@biola.edu
www.smkc.us

오레곤 벧엘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8:1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청년부예배 주일 오후 2:00
수요온라인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이돈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391 SW Blanton St. Beaverton, OR 97078
T. (503) 649-3990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얼바인온누리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대청Promise 오후 2:00
수요성령집회 오후 7:30
목요여성예배 오전 10:30


박신웅 담당목사

주소 및 전화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둘로스선교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EM 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금요 찬양 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예배 오전 6시(화 ~ 토)


이병호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116 W 6th St. LA, CA 90020
T. (213)365-2942

올림픽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금요찬양 오후 8:00


이수호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055 Wilshire Blvd. #22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어노인팀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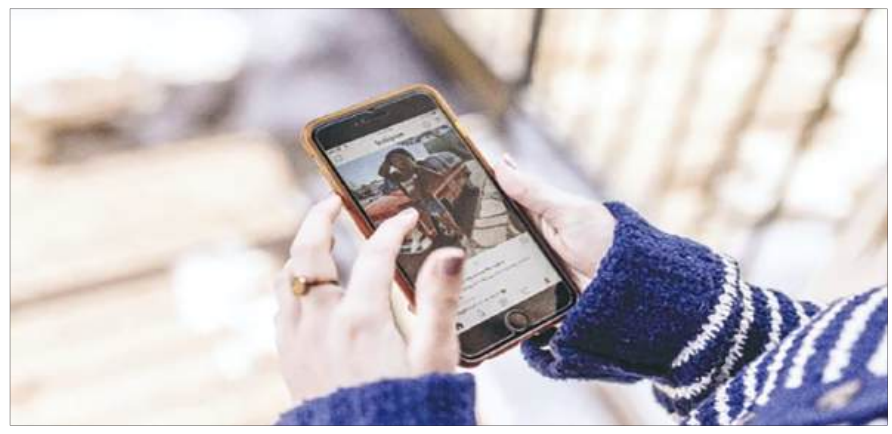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중보기도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美 복음주의자 54% "소셜미디어 신앙에 해롭지만 그래도 사용"



Unsplash/Kate Torline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복음주의자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신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롭다고 믿지만 그래도 사용한다고 답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인피니티 컨셉츠(Infinity Concepts)와 그레이 매터스 리서치(Grey Matter Research)가 발표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영적으로 더 많이 관여할수록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도움이 되는가 해로운가? 복음주의자와 소셜미디어'(Helpful or Harmful? Evangelicals and Social Media)라는 제목으로 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올해 초 1천39명의 복음주의 개신교인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복음주의자들이 페이스북(81%)을 최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꼽았고, 유튜브(71%), 인스타그램(45%), 틱톡(35%), 핀터레스트(28%)가 그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복음주의자 중 약 54%는 소셜미디어가 도움보다 해롭다고 믿지만, 그래도 그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또 소셜미디어가 해롭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로 그 플랫폼이 해롭고 위험하며 세속적인 콘텐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복음주의자의 29%는 소셜미디어가 기독교인에게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롭다고 답했다. 약 15%에 달하는 일부 기독교인은 소셜미디어가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 거짓 교리,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정보, 기독교인에 대한 괴롭힘과 같은 요인을 꼽은 이들도 있었다.

복음주의자 가운데 42%는 "소셜미디어가 기독교 신앙에 해보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47%가 "전도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18%는 "기독교 콘텐츠에 더 쉽게 연결할 수 있다"고 했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이들도 있었다.

연구자들은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하고 보존하며 생명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죽을 수 있다. 오피오이드(아편성 진통제)는 강렬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많은 생명을 파괴했다. 물과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도 모든 생명에 필요하지만, 홍수는 지역사회를 황폐화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만 명 이상이 익사한다. 이 연구를 통한 데이터를 보면, 소셜미디어도 거의 비슷하다"고 했다.

이어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소셜미디어)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부나 격려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쌓고, 다른 신자들과 더 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극찬한다. 다른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는 얕고, 산만하고, 거짓되고, 유혹적이며, 심지어 사악하다고 비난한다. 많은 경우 두 관점이 모두 맞다고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복음을 전파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격려하고, 억압하고, 가르치고, 산만하게 할 수 있는 도구"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美 뉴저지 대형교회 자원봉사자 수천명, 1백만끼 식사 포장



식사를 포장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Liquid Church

미국 뉴저지의 한 대형교회에서 자원봉사자 수천명이 1백만끼의 식사를 포장해 성탄절 시즌 해외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초교파 교회인 '액체교회'(Liquid Church)는 최근 열린 '크리스마스 아웃리치' 행사의 일환으로 모든 캠퍼스에서 총 120만 끼 식사를 포장하는 작업을 감독했다.

이 교회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인 브룩 스템퍼트는 CP에 자원봉사자 6천여명이 이 활동에 참여했고, '라이즈 어겐스트 헝거'(Rise Against Hunger)라는 단체와 협력했다고 말했다.

스템퍼트는 "우리는 놀라운 자원봉사자들 없이는 이것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뉴저지 전역의 교회 공동체와 지역 사회에서 연례 크리스마스 아웃리치에 대한 놀라운 반응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교회의 7개 캠퍼스는 모두 식사 포장 장소로 사용되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1백만 끼 식사를 포장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스템퍼트는 "각 교회 캠퍼스마다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에너지가 있었다"며 "자원봉사자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식량은 아프리카 잠비아로 보내질 예정이다. 교회는 이미 '깨끗한 물 구하기'라는 프로젝트를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스템퍼트는 "크리스마스는 베푸는 것과 관대함의 계절이며, 크리스마스 아웃리치에서 봉사한 자원봉사자들이 이것의 일부가 되어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혼자서는 별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함께라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 타인을 섬기는 것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전부"라고 했다.

120만 끼의 식사는 교회가 매년 크리스마스 자선 행사를 위해 준비했던 식량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며, 지난해 보고된 약 100만 끼의 식사를 앞지른다.

액체교회(Liquid Church)는 지난 2007년 팀 루카스(Tim Lucas) 목사가 시작했다. 교회의 시작은 지하에서 모인 20대 기독교인 그룹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경 기자

남가주 밀알 화요예배 한 해의 끝에서 감사의 마음을 새기다

남가주 밀알 화요예배가 10일 오후 7시 30분에 새누리교회에서 있었다.

이날 Mousikêum(뮤직케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밴드가 참석해 크리스마스 축하 콘서트를 열고 Silent night, Jingle Bell Rock, Your Song 등 12곡을 연주하며 청중들에게 갈채를 받았다. 피아노 및 보컬에 Jae Park, 기타에 John DePatie, 베이스 및 보컬에 Amos Byun이 참여했다.

"다윗의 감사"(시편 9:1-4)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조영건 목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며,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조 목사는 밀알 선교단의 사역이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며, 각 성도와 모든 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깨닫고 감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며, 감사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의 중심임을 강조했다.

특히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교 중 조 목사는 예전에 자신의 건강 관리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군대식으로 산다. 신앙 생활에서도 이러한 규칙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식 생활은 영적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성도들에게도 규칙적인 삶을 실천할 것을 권면했다.

조 목사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독려했다. 그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건강을 주시길 축복하며, 밀알 선교단이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강태광 목사의 교회 탐방기]

LA씨티교회 써니김 목사의 선교적 사역

LA씨티교회와 써니김 목사의 선교적 사역

LA씨티교회는 써니김 목사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 지난 11년간 일터 중심의 독특한 선교적 비전을실현해온 교회입니다. 써니김 목사는 풀러신학교 선교학 박사이며, 현재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 (전미주장로회신학대학)의 실천신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음 세대 목회자와선교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써니 김 목사가 개척한 LA씨티교회는 단순히 예배 공간을 넘어, 성도들에게 그들의 일터를 하나님의사역지로 바라보게 하는 '일터교회'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핵심 철학은 '삶의 자리가 곧 선교지'라는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델

LA씨티교회는 비록 소규모 교회지만, 성숙하고 수준 높은 성도들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성도들 중에는 성경을 37독 완독한 성도도 있을 만큼 말씀에 대한 깊은 열정과 영적 성숙을 보여줍니다.

또한 써니김 목사는 매일 아침 '은혜로 물든 아침 말씀 묵상'을 작성하여 성도들과 선교지 등 약 500여곳에 전하며 말씀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 성장에 그치지 않고, 성도들의 일터 영성을 고취하며, 그들이 살아가는환경과 관계 속에서 선교사적 삶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비전 아래 LA씨티교회는 건강한 교회의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6개의 목장을 위해 12명의 훈련된 리더들이 매주 목장모임을 인도하면서성도들 개개인의 영적 성장과 선교적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부교역자들과 성도들의 헌신적인 사역

이 교회의 부목사인 이 아모스 목사는 매년 한국교회에 부흥사로 초청 받을 만큼 깊은 영성과 탁월한 영성을 가진 설교자입니다. 그는 음악인들 사이에서도 선교음악회 기획 및 감독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수십 차례 선교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기획, 감독하고 사회를 맡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찬양과 말씀사역을 담당하며 예배의 영성과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타운에서 잘 알려진 폴김 목사는 이 교회의 선교목사로, 자신의 일터선교사로서의 삶을 모범으로 삼으며 성도들에게 선교적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실천하며 교회의 선교적 비전을 힘있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근옥 장로는 구수한 입담과 유쾌한 성품으로 예배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며 성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성과 은혜를 담아낸 깊은 경배로 표현됩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은 그가 인도하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를 경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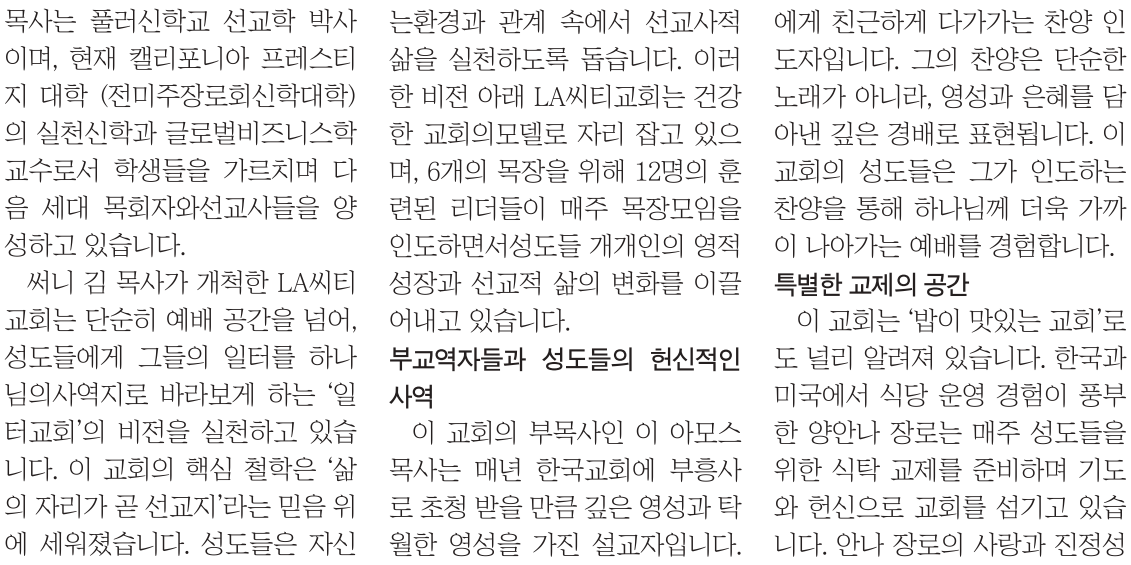
특별한 교제의 공간

이 교회는 '밥이 맛있는 교회'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식당 운영 경험이 풍부한 양안나 장로는 매주 성도들을 위한 식탁 교제를 준비하며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안나 장로의 사랑과 진정성 있는 섬김 덕분에 성도들은 따뜻한 식탁에서 교제하며 서로의 믿음을 나누고힘을 얻습니다.

수준 높은 영성과 공동체

LA씨티교회는 작지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 자신이 교회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 현대 교회의 선교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한사람 한사람이 수준 높은 영성과 헌신을 갖추고 있으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태광 기자



LA씨티교회가 1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삶이 예배가되는 일터교회, 일터선교사를 훈련하는교회" 의 사명을 견고히 할 것은 다짐했다.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베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계시에 대한 반응

예배에서 '음악'은 얼마나 중요한가?



영광의 회복: 성경적인 예배 신학의 회복

다니엘 I. 블록 | 전남식 역 | 성서유니온선교회 | 588쪽 | 12,000원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한 책이다. '성경이 예배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누가 참된 예배의 대상인가?'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리고 이 질문들에 근거해, 개인의 윤리와 직업과 가정생활을 통해 구현되는 예배의 외적 표현에 대해 탐구한다

삶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공동 예배가 차지하는 위치, 예배 공간의 중요성,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도자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까지 다룬다

각 장 끝부분에는 오늘날 예배에 내포된 성경적-신학적 원리들을 개선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까지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더욱 성경적이면서도 실제적이 되게 할 것이다

예배는 단지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안다. 예배를 그렇게 좁은 의미로 제한할 수 없다. 한편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전적 예배에 관해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모든 것이 다 예배라고 말하면서도,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룬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일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어떤 목적과 의미와 형식을 갖추고 드려져 왔는가? 오늘날 예배 공동체인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명령하신 그분을 합당하게 높여드릴 수 있는가?

휘튼칼리지 구약학 명예교수이자 NICOT 〈에스겔〉과 NAC 〈룻기〉, NIV 적용주석 〈신명기〉 등 훌륭한 주석들의 저자인 다니엘 I. 블록은 〈영광의 회복〉이라는 책을 통해 '성경적인 예배 신학의 회복'을 추구한다.신학대학원에서 필자를 가르친 교수는 다니엘 블록이 쓴 모든 저작을 반드시 읽어보라고 추천한 적이 있다. 주석 외에는 국내에 소개된 바 없는 저자의 책 중 〈영광의 회복〉이 2019년 성서유니온선교회를 통해 보급되었고, 재정가 전 대비 훌륭한 가격 혜택을 받아 방대하고도 유익한 예배 신학의 자원을 이렇게 귀하게 접할 수 있어 감사했다. 블록은 구약학 박사로서 구약을 대변하기 위해 굉장히 애쓴다. 전혀 과장된 방식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얼마나 동일한지, 구약의 복음이 신약의 복음과 얼마나 닮았는지 설명한다(구약은 율법적 심판, 신약은 복음적 은혜라고 구분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블록은 이 책에서 예배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다룬다: 예배에 대한 성경적 이해(정의), 예배의 대상, 주체, 예배적인 일상과 가정생활, 노동, 성례전, 예배에서의 성경 사용과 기도, 음악, 봉헌, 예배가 담고 있는 드라마, 예배가 이뤄지는 공간과 디자인, 예배 인도자. 각각의 주제에 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음직한 선입견을 먼저 제거하고 온전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용어와 사례를 들어 분석한다.

탁월한 실력으로 성경 전체에서 주제와 관련된 교훈을 뽑아낸 후, 그것을 요약해 오늘날 교회를 위한 적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예배에 관한 저자의 정의는 각 장을 시작할 때마다 반복하여 강조되는데,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자기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복종과 경의를 표하는 인간의 경건한 행동을 수반한다"가 바로 예배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이 훌륭한 예배의 도구인 것은 사실이지만, 저자가 내린 예배의 정의만 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자기 계시"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과 연주와 경배와 합당한 삶, 순종, 봉사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우선순위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와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자기 계시에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설교자, 인도자, 예배 찬양 리더 등 뭐라고 불리든, 그들은 모두 블록이 연구한 것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또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셨는지 궁금해하고 또 알기 위해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설교를 포함한 모든 예배 행위는 결국 예배자를 통해 표현된다. 기술과 실력과 도구가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것을 연주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예배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합당하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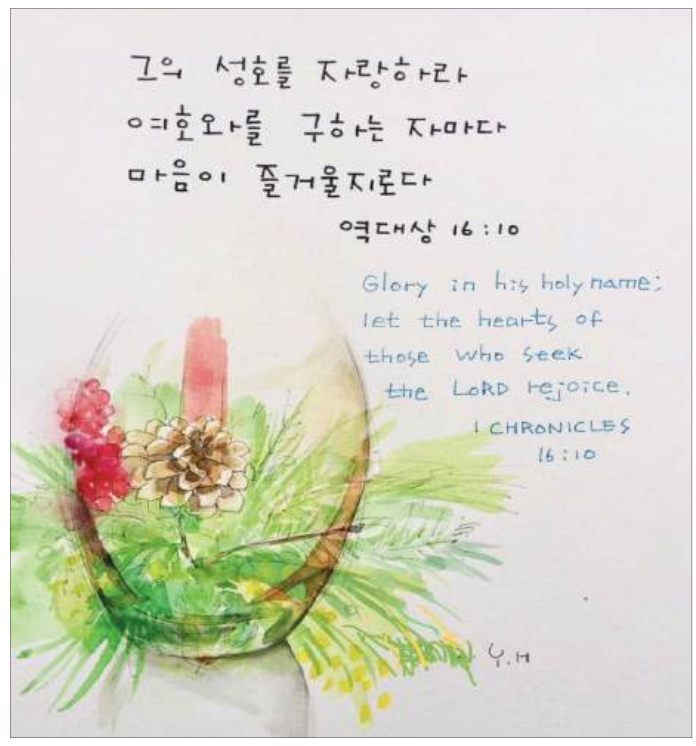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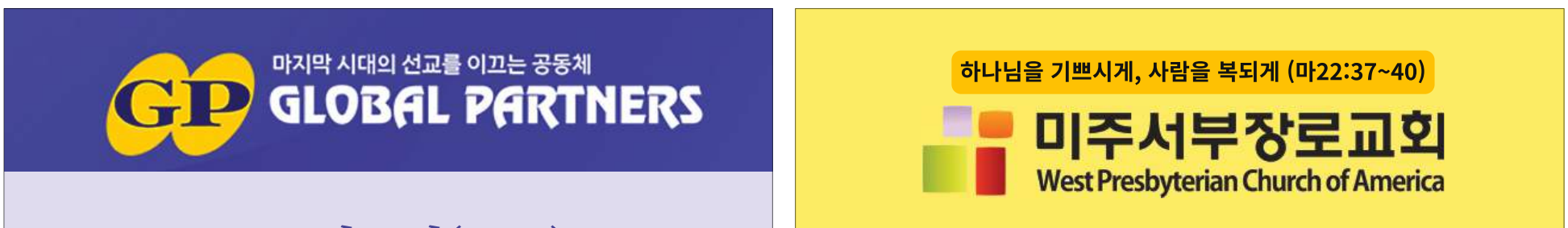
오륜교회 헤세드 팀이 지난 4일 2024 다니엘기도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위 사진은 본 서평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다니엘기도회

블록은 아주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종종 음악을 단조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엔 장조로 마칠 것을 제안할 정도로, 실질적 교훈을 주기도 한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성경적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또는 인도하고 준비하는 이들과) 토론하고 실제로 어떻게 현재 적용하고 있는 예전에 반영할 수 있을지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예배를 위하여 창조됐고,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위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온전하게 예배할 그날을 기다린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에,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이 땅에서 천국의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성경적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송정명 칼럼

마음의 구유를 비웁시다



송 정 명 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회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야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에 자주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 이후 400여 년 어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혼란해지고 어두운 흑암이 온 나라를 뒤덮는 암흑기가 도래했습니다. 정치도 종교도 무너져 내리고 민심은 극도로 혼란에 빠져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난 12월3일 예기치 않은 국가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로 인해 나라 전체가 극도로 혼란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나라는 뒤숭숭한 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도 걱정되고 국내 치안을 담당할 책임자들이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렀기에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되어 지금까지 돈독한 한미동맹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까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들도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은 매일 들판에서 밤을 지새면서 양 떼를 돌보고 있는 순박한 목동들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시니니라"(눅 2:11)

곧 이어서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힘찬 코러스가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놀라운 소식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귀한 소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한 소식의 주인공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울 만한 자리가 없어 구유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구유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의 구유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구유에 시기, 질투, 분노, 욕심, 실망, 좌절, 염려 같은 요소들이 꽉 차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음의 구유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탄을 기다리고 있다면 먼저 우리의 구유를 점검하고 비울 것을 비우고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 겸손하게 엎드리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유에 오셔서 참된 평강을 회복해 주시고 소망으로 앞날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상명 칼럼

성탄절 단상



이 상 명 총장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칼 바르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독일 신학자입니다. 그는 1961년에 시카고대학에 초청 교수로 가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강의가 있던 날, 신학대학 학장은 청중들에게 "바르트 박사가 건강도 여의치 않고 몹시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싶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것은 그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대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장은 그 저명한 신학자를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얻은 그 수많은 신학적 통찰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노대학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 이 질문에 대해 그가 무슨 말을 할까를 잔뜩 기대하며 귀를 기우렸습니다.

바르트는 지그시 눈을 감고 몇 분간 생각에 잠깁니다. 얼마 후 그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짓더니 이내 눈을 뜹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얻은 신학적 통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 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대 신학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치고는 너무나 소박해서 어쩌면 듣는 이들이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바르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을 이미 우리 마음에 품었으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과 바꾸신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던지는 헌신과 희생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 메이커로 살아가도록 북돋워주십니다. 땅의 비루한 욕정에 붙들려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가르치십니다. 이 땅의 가치와 질서 속에 깃든 악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것을 전복하는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현실을 하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 하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입니다.

산에서 바위틈에 뿌리내리고 사는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강인함을 봅니다.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나오는 산성용액으로 바위를 녹이며 뿌리를 뻗어간다고 합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뚫는 겁니다. 처마 밑에 놓아두었던 댓돌이 빗방울에 움푹 패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포근한 대지가 날카로운 칼을 품고서 녹슬게 하여 녹이는 것도 그런 진리를 깨우칩니다. 딱딱하고 강한 것이 무르고 약한 것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생명 세계는 그 반대입니다. 생명에 가까운 것일수록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지만 무력하지는 않습니다. 작고 연약한 것 앞에 다가갈 때 우리 영혼은 맑아집니다.

천국 주권자로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가장 연약한 아기로, 가장 비천한 종으로 오신 것이 성탄절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오는 성탄절을 가장 의미있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누군가로부터 받을 선물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에 선물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위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그저 받았으니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그저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 세상은 한결 따뜻해지고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복된 선물이 되는 성탄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Vermont Ave
Menlo Ave
Westmoreland Ave
Olympic Bl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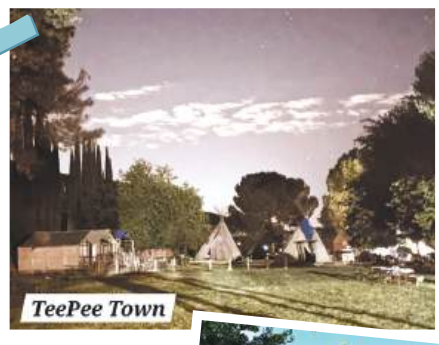
ACTION CAMP에 오셔서 힐링하세요!

가족, 친구, 성도분들과 멋진 여행을 통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Action Camp 장은…


Music Festival


Camping


TeePee Town


Church Retreat


PCT Hiker


RV Park


Movie Night


Cabin Town


Youth Group Retreat


Church Retreat

미국내 가장 좋은 **시설여건, 서비스**

1. 교회 수련회, 단체 할인 혜택
2.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야외 영화도 볼 수 있는 스크린 설치
3. 샤워장, 공연장, 카페,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놀이터
4. 야외 파티와 행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5. 디럭스 캐빈(Deluxe Cabin), 오토 캠핑(RV), 인디안텐트(TeePee), 텐트(Tent)장 주변에 전기, 수도, 식탁, 하수도 시설
6. 회원의 경우 캠프사이트나 캐빈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ACTION CAMP
FAITH & HOPE

www.actioncamp.cc / larvresort.com

ACTION CAMP
- HEALING
- EDUTAINMENT
- SPORT
- MEDIA
- GREEN

전화예약 or 온라인예약

T. 661-268-1214

7601 Soledad Canyon Rd. Acton CA 93510

Scan me!

진유철 칼럼

예수님이 하신 믿음의 루틴을 배우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예수님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더욱 바빠지셨고 많은 활동만큼 대적과 문제도 많아지셨는데도 올바르게 잘 준비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준비는, 첫째 모든 시작을 기도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이나 처음 제자를 택하실 때나 매일 새벽에, 모든 시작을 기도로 이루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막1:35) 사도행전에서도 교회가 시작될 때나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도 기도로 시작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의 번영과 복도 청교도 신앙인들의 기도로 시작했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차의 파워 베이스는 기관차에 있습니다. 기관차가 앞에서 끌고 붙어있는 객차는 이끌려가는 것처럼 모든 시작을 기도로 이루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기쁨과 파워를 마음껏 못 누리는 크리스천들은 시작이 아니라 힘들어질 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고난을 상대하기에 늘 고난에 눌린 신앙생활이 됩니다. 매일의 새벽기도,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의 기도, 한 해의 시작인 신년축복기도 등 먼저 기도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중요한 일은 중요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이고 확실하게 철야기도 하신 일은, 제자를 세울 때와 십자가를 지실 때였습니다. 중요한 사역이기에 중요하게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성도에게 꼭 물어야하는 말은 기도 얼마나 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말해도 중요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사소한 일로 여겨져서 티끌같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늘나라의 중요한 일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맡겨진 사명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10번 나오는데, 다 중보기도입니다.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이 중보기도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22:31-32)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닭소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선교도 중보기도와 같습니다. 바울이 선교 중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옥터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장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해도 중보기도 하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교회는 중보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의 단기선교가 시작되고 장자교회로 많은 사명의 일들을 위해, 먼저 기도로 모든 시작을 이루고,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루틴을 잘 준비하여 한 해 동안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강준민 칼럼

성탄을 통해 배우는 예수님의 성품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탄생 장소는 높은 곳이 아닙니다.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탄생 장소는 지극히 낮은 곳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 배우는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택한 보좌는 구유였습니다. A. W. 토저는 "구유는 단순한 요람이 아니라 겸손의 보좌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선택에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겸손과 교만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는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옛 뱀이 그를 유혹한 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부추긴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교만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겸손은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낮은 데로 임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낮은 데로 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낮은 곳에 임하신 까닭은 낮은 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은 위험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은 오래 머물수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은 매우 춥습니다. 산소가 희박합니다. 오래 머뭇거리면 죽습니다. 높은 정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높은 정상은 머물기 위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기 위해 정복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이 위험한 까닭은 높은 곳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높은 곳에 오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을 감출 줄 알아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자신을 감추는 삶의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겸손의 덕을 겸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스스로 내려오는 길을 선택하든 끌어내려 오는 길을 선택하든 결국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높은 위치에 서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단 6:10).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시 17:8, 36:7).

높은 곳이 위험한 반면에 낮은 곳은 안전합니다. 가장 낮은 곳은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은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평강이 넘칩니다. 낮은 곳을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넘칩니다. 낮은 곳을 행복으로 선택한 사람은 날마다 행복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족에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아무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행복이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행복합니다(빌 4:11-12).

예수님이 낮은 곳에 임하신 까닭은 비천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입니다(엡 2:6). 팀 켈러는 "구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표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은 자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높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유를 성탄의 장소로 선택하심으로 가장 작은 것 속에 담긴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하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요 1:12-13).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 받아 겸손한 성품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성탄이 되시길 빕니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Christmas
성탄을 축하합니다

CMF 선교원

결혼교실, 결혼준비교실, 아내교실,
사모교실, 선교사부부축제
MK Celebration, 사랑의 찬양제
CMFN
www.GodFamily.com



13459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714)493-0191
김철민 장로

LA 기쁨의 교회

주일예배 1부 8:00AM
주일예배 2부 10:30AM
주일학교 10:30 AM
청소년 예배 10:30 AM
English Service 9:00 PM
금요예배 7:30PM
새벽예배(월~토) 5:30AM
www.thejoylife.org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351-9975 (Fax겸용) e-mail: joylife9191@gmail.com
이희문 담임목사

LA 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온라인 수요저녁예배 (수) 오후 8시
새벽예배 월 – 온라인 오전 6:00
화 ~ 토 – 현장 영상예배 (오전 6:00)
*찬양시작 각 예배 15분 전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가나교회

주일예배 오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5시:30



1201 W. 255st St. Harbor City, CA 90710
310-986-9797 ganachurch@hotmail.com
안병권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10
주일예배 3부 오전 12:00
주일4부예배(청년) 오후 1:45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 (토)오전 6:30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www sunhanchurch com
고태형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유치부주일예배 오전 11:00
초중고등부주일예배 오전 11:00
대학청년부주일예배 오전 11:00
Anointing 찬양워십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45, 토 오전 6:20



25500 S. Vermont Ave, Harvor City.,CA90710
T:(310)326-0300
이황영 담임목사

멜리데교회

주일 1부 오전 8:30 (본당)
2부 오전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본당)
토 오전 6:30
중고등부 오전 10:40 (1층 중고등부실)
유초등부 오전 11:00 (2층 유초등부실)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483-6625
고귀남 담임목사

씨미밸리침례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2부 오전 11:15
주일영어부예배 오전 9:45
수요제자훈련 오전 10: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45



4868 Cochran St. Simi Valley, CA 93063
T. (805) 582-1102
반채근 담임목사

방주교회

주일예배 오후 12 :00
주일학교 오후 12 :00
수요예배 오후 7:00



3735 Hughes ave. Los Angeles, CA 90034
T. (310) 836-8342,(213)663-3301
김영규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1818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325-4020
박성규 담임목사

세리토스 충만교회

Fullness of Christ Evangelical Church

주일예배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20 (월~금)



18325 Horst AVe., Artesia, CA 90701
T. (714)262-1428
김기동 담임목사

소망장로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www.somangusa.com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505 LA CA 90057
Tel. (213)487-2481
성요셉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조응철 목사

옥스나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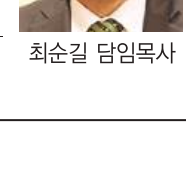


269 Walnut Dr. Oxnard, CA 93036
T.(805)485-0100
남재헌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이춘준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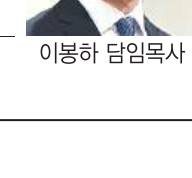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00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1:30
금요 찬양기도의 밤 저녁 8:00
새벽기도 (화-금) 새벽 5:30



500 Shatto Pl. #410 LA, CA 90020
T. (213) 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LA 백송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금)
오후 3:00(토)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김성식 담임목사

토랜스조은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토랜스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영어2부예배 오전 11:00
EM Service Sunday 오전 11:00
금요 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2531 West 237th Street, Torrance, CA 90505
T.(310)326-2001/310-989-4381
이승혁 담임목사

찬양교회

주일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말씀공부 주일 오후 1:30
금요 기도회 오후 7:00
토요 무료교실 오후 1:00~7:00



3401 W. 3rd Street. Los Angeles, CA90020
T.(682)410-7160
이계선 담임목사

나성임마누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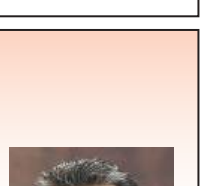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563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T. (714)743-0141
최순길 담임목사

LA 건강한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2525 W. 8th St. #205, Los Angeles, CA 9005
T.(213)271-5034 / Youngbchoe@gmail.com
최영봉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 화~목 오전 6:00
토 오전 7:00
금요찬양집회 오후 7:30



511 S Loara St., Anaheim, CA 92802
T.(714)772-3100
이봉하 담임목사

축성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그리스도의 흔적을 행하는 주님 Church (갈6:17)

주님 Church

예배시간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0:30
EM 예배 오전 10:30
차세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한글학교 오후 12:40



최현규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주일예배 장소 : Sonora High School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사무실 :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T. (626)901-9191 / www.joonim.org

구세군 O.C 한인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 부 : 오전 9시
장소 : 94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주일예배
2 부 : 오후 12시 30분
장소 : 1515 W North St, Anaheim,
CA 92801



김성수 담임목사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나성한미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토요무릎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킨더,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홍충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626)444-0058 / www.lahanmichurch.com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회장 : 샘신목사
수석부회장 : 김은목 목사
총무 : 송충섭 목사
서기 : 박창근 목사
회계 : 권영신 장로
전략기획위원장 : 이성우 목사
사무총장 : 최영하 목사
사무국장 : 자스민박 전도사



회장 샘신 목사

제 55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샘신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Joy to the World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성탄 축하 예배

- 성탄주일 (12/22) 오전11시
- 성탄축하 (12/24) 오후 7시



담임 이 동 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www.sunghwachurch.org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Normandie Ave. + 158th St)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이충환 담임목사

예/배/안/내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e–mail : iccc.office1@gmail.com
www.icccla.org

주안에교회 ICCC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신승훈 담임목사

예배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주님의영광교회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2024년으로 창립 25주년을 맞게된 주님의 영광교회는 LA다운타운, 그랜드와 워싱턴이 만나는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구원을 받으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하여 제자되기를 힘쓰며, 2세가 잘되도록, 또한 선교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온라인
(토) 오전 6:00 본당
Children's Sunday School 오전 11:00
Youth & Young Adults 오전 11:00

10408 Balboa Blvd. Granda Hills, CA 91344
T. (818)366–0089 / www.ilovejcc.com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기쁘다 구주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 14)



진유철 담임목사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www.lafgc.com

예배안내

1부	오전 7:30 본당
2부	오전 9:30 본당
3부	오전 11:45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본당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7:30 본당
영아부예배(0-2세)	주일오전 9:30, 11:45 영아부실
유치부예배(3-5세)	주일오전 9:30, 11:45 유치부실
유년부예배	주일오전 9:30(영어), 11:45(한국어) 구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AWANA) 구교육관
WG영어중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30, 금요일 오후 7:30 영어중고등부실
JVT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11:30, 금요일 오후 7:30 한어중고등부실
청년 예배	주일오전 11:45 본당
EM예배	주일오전11:30
실버드림대학	목요일 오전 9:00 신구교육관
토요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9:30 신구교육관

LAFGC 나성순복음교회 LA FULL GOSPEL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 Tel. 323-913-4499
lafgcusa@yahoo.co YouTube유튜브 채널 – '나성순복음교회' @LAFGCTV

평화와 희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MERRY Christmas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담임목사 구 봉 주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7:3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30

YDC한어대학청년부
4부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Email : tkcoffice1983@gmail.com
T. (714)521-0991
http://thanksgivingchurch.com/

감사한인교회 THANKSGIVINGCHURCH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눅2:11-12)



김한요 목사
Rev. Bryan H. Kim, Lead Pastor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1부 예배: 오전 7시 / 본당
- 주일 2부 예배: 오전 9시 / 본당
-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 / 본당
-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후 2시 / 본당
- 주일 영어 예배: 오전 9시(1부), 11시(2부) / BGC 채플
- 주일 日本語 礼拝: 오후 1시 15분 / 임마누엘 채플
- 주중 새벽 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 본당
- 토요 헵시바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본당
-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본당

베델교회 BETHEL CHURCH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Tel (949)854-4010 • Text-only: (949)229-1181
www.bkc.org • email: bethel@bkc.org • 수양관 (949)943-9697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For to us, a child is born.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충현선교교회 홈페이지 충현선교교회 YouTube

충현선교교회 연말연시 예배 안내

예배안내			
	12월 25일 (수)	11:00AM	Christmas Family Worship
	12월 31일 (화)	11:00PM	송구영신예배
	1월 6-18일 (월-토)	5:20AM	특별새벽기도회 (헤브론 경건훈련)



담임목사
국윤권
Rev. Kenny Kook

충현선교교회 2025 신년 부흥 집회 1월 17일(금) - 19일(주일)

주 제 "기도로 북한과 열방을 품는 제사장 민족" (시 118:17)

집회일정			
	1월 17일 (금)	7:30PM	'복음 통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잠언 24:11-12)
	1월 18일 (토)	5:20AM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절대성' (역대하 7:13-14)
	1월 18일 (토)	7:00PM	'전쟁보다 시급한 비상사태' (디모데후서 4:1-2)
	1월 19일 (주일)	1,3부	'민족 화해 축복의 원리' (창세기 45:1-11)
		2부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 (마태복음 24:14)
		2:00PM	'3대 경건의 능력' (데살로니가전서 5:16-18)



강 사
임현수 목사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목사)

충현선교교회 CHOONG HYUN MISSION CHURCH 담임목사 국윤권 Rev. Kenny Kook 문의: 818-549-9191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www.choonghyun.org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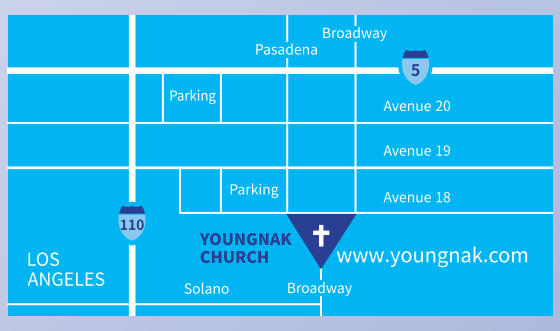


담임목사 박은성
Rev.Dr.Eunsung Park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30분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영어예배	1부 오전 9시 (주일) 2부 오전 11시 (주일)
새벽 기도회	월 ~ 금 오전 5시 30분
능력의 수요 강해	수요일 오전 10시
온교우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전 6시
아동교육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 금 오후 7시
주일한국학교	주일 오후 1시
토요한국학교	토 오전 9시 30분~ 12시 30분
AWANA(K-6)	주일 오후 2시~오후 3시 30분
특수부예배	주일 오전 11시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손창민 (Rev. Changmin Son)
담임목사

www.churcheveryday.org

■ Worship Hours
주일예배 1부 8:00am 본당
주일예배 2부 9:30am 본당
주일예배 3부11:15am 본당
교육부 (영아부 - Roots 중고등부)
1부 9:30am, 2부 11:15am 각 교육부실
EM (Grace Life) 9:30am 차동석홀
CEYA(한어청년부) 11:15am CEYA 예배실
KARDIA(영어청년부) 1:30pm 교육관 3층
향기마을 11:15am 향기마을 예배실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7:30pm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5:30am 본당

■ Address
17037 Devonshire St.Northridge, CA 91325
Office: 818-832-6628
Fax: 818-368-0089
info@churcheveryday.org

CHURCH EVERYDAY